

강원 영동지역

경제일지

2026년 2월 중

강원 영동지역 경제일지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와 통계연구팀이 협업하여 일 평균 약 4,000여 건의 경제 기사를 분석하여 작성됩니다.

2.1일, “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·우대저축공제” 추진협약

- 속초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‘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’ 업무협약을 체결
 - “내일채움공제”는 속초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납입시 속초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을 지원, “우대저축공제”는 영세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월 10만원 저축시 속초시와 중진공이 총 4만원을 지원
 - 속초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

2.12일, 동해선 삼척-강릉 구간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

- 국토교통부는 12일 총 사업비 1조 1,507억원이 투입되는 동해선 삼척-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
 - 대상은 강릉에서 삼척역까지 총 연장 45.2km 구간으로 기존 선로 노후화로 인해 동해선 전구간중 유일한 저속구간으로 동해선의 대표적 병목구간으로 꼽혀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동해선(부산-제진) 475.1km 전 구간이 사실상 준고속 이상의 연속성을 확보
 - 사업완료시 부산-강릉간 이동시간은 3시간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동해시는 고속화 사업으로 항만-철도 연계 물류기능이 강화되어 산업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